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공회를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 모든 아메리카 대륙으로 지경 넓힌다!

### CGN 미주지사 설립 20주년 감사예배 드려 미주 및 중남미 선교사와 목회자 위한 ‘선교 허브’

CGN 미주지사가 오는 8월 27일(수) 설립 20주년을 맞이한다. 이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감사예배를 미국 동부와 서부에서 드렸다. 동부에서는 지난 8월 19일(화), 뉴저지온누리교회(담임 마크 최 목사)에서 감사예배를 드렸다. 설교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복음에 빛난 자’(롬 1:14-16)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날 이재훈 위임목사는 “CGN은 복음에 빛난 자의 마음으로 시작해 ‘교회 너머의 교회’라는 소명을 감당하고 있다”면서

“故 하용조 목사의 Acts29 비전을 따라 앞으로도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서부는 8월 23일(토) 엘바인온누리교회(담임 박신웅 목사)에서 감사예배를 드렸다.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가 설교했다. 황지수 CGN 미주지사는 “앞으로도 영어권 다음세대를 위한 미디어 선교를 핵심 비전으로 삼고, 중남미를 넘어 모든 아메리카 대륙으로 지경을 넓히는 도

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CGN 미주지사는 지난 2005년 8월 27일 미국 LA에 문을 열었다.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며 미주 및 중남미 지역 선교사와 현지 목회자를 위한 전략적 ‘선교 허브’ 역할을 감당해 왔다. 대표적인 오리지널 콘텐츠로는 전 세계 한인 선교사의 삶과 사역을 담은 다큐멘터리 시리즈 <미션로그>,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기록해 1,300만 뷰를 기록한 <더 파이널 프로젝트> 등이 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 2025 하비스트(Harvest) 준비 한창

### 이주민 성도 섬길 봉사자 모집

2025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2025 하비스트(Harvest, 이하 하비스트)’ 준비가 한창이다. 올해는 10월 4일(토)부터 6일(월)까지 파주 영산수련원에서 ‘Renewal(영적 각성, 예배의 회복)’을 주제로 막 오른다. ‘하비스트’는 이주민들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면서 하나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이주민공동체의 연합예배다. 몽골, 네팔,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중국, 페르시아 등지에서 온 이주민 600여 명

이 참석할 예정이다. 하비스트를 봉사자 140명을 모집한다. 모집 부문은 예배지원(영상촬영, 편집 등), 접수·안내, 교통·차량·숙소, 식사·간식, 의료지원, 차세대 프로그램, 국제문화축제 ‘Mini Nations Tour’ 등이다. 올해 하비스트에서는 이재훈 위임목사, 해럴드 김 목사(국제사역본부), 마주 목사(AIC, 안디옥인도네시아선교회), 김태완 목사(온누리M미션)가 말씀을 전한다. 문의: 031-491-9650

### 시니어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하반기 시니어아카데미가 개강한다. 서빙고 9월 10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두란노홀, 양재 9월 10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드림홀, 부천 9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

시 20분 비전홀(지하 1층)에서 진행된다. 대상은 서빙고와 양재 65세 이상, 부천 만 70세 이상 어르신 성도다. 등록은 시니어아카데미 개강일 현장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서빙고와 양재 5만 원, 부천 3만 원.

## 여름 아웃리치 막바지

### 국내외 320개 팀 6,438명 참가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가 막바지다. 현재까지 국내외 320개 팀 6,438명이 아웃리치에 참가했다(8월 20일 기준). 국내 아웃리치는 춘천, 남양주, 제주, 태안 등지에서 진행했다. 군 장병 초청 잔치, 마을 및 노방 전도, 어린이 사역, 마을 미화 작업 등을 했다. 해외 아웃리치는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지에서 했다. 선교사 위로와 교제, 의료 사역, 어린이 캠프, 교회 보수 작업 등을 했다.

성정대 집사(동대문중앙공동체)는 “공동체 아웃리치가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흠날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안태숙 집사(영등포왕로공동체)는 “아웃리치에 참가하면서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는 분임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관련 기사 4면>.

/ 박지혜 기자

## 온누리공동체 2025년 하반기 개강예배

온누리공동체가 2025년 하반기를 힘차게 출발한다. 8월 26일(화)부터 9월 14일(일)까지 공동체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하반기 개강예배를 드린다(표 참조). 2025년 하반기에도 올해 표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따라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뜻깊은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 서빙고       |        |         |       |
|-----------|--------|---------|-------|
| 날짜        | 공동체    | 장소      | 시간    |
| 8월 26일(화) | 이수     | 두란노홀    | 18:00 |
| 8월 26일(화) | 천양사역   | 비전홀     | 18:00 |
| 8월 26일(화) | 영등포 구로 | 시온홀     | 18:00 |
| 8월 28일(목) | 서대문    | 두란노홀    | 18:00 |
| 8월 28일(목) | 강서     | 한동홀     | 18:00 |
| 8월 28일(목) | 용산     | 비전홀     | 18:00 |
| 8월 29일(금) | 신용산    | 한동홀     | 18:00 |
| 8월 30일(토) | 북누리    | 북누리센터   | 16:00 |
| 8월 30일(토) | 서빙고    | 강화 예수마을 | 16:00 |
| 9월 2일(화)  | 성동광진   | 시온홀     | 18:00 |
| 9월 2일(화)  | 관악금천   | 한동홀     | 18:00 |
| 9월 2일(화)  | 여의도    | 정국빌딩 4층 | 20:00 |
| 9월 3일(수)  | 이촌     | 한동홀     | 18:00 |
| 9월 3일(수)  | 양천     | 두란노홀    | 18:00 |
| 9월 4일(목)  | 동대문중앙  | 한동홀     | 18:00 |
| 9월 4일(목)  | 강촌     | 비전홀     | 18:00 |
| 9월 4일(목)  | 동작     | 두란노홀    | 18:00 |
| 9월 5일(금)  | 노원     | 시온홀     | 18:00 |
| 9월 5일(금)  | 한강     | 두란노홀    | 18:00 |
| 9월 5일(금)  | 중종로    | 한동홀     | 18:00 |
| 9월 5일(금)  | 광명     | 하안장로교회  | 18:00 |
| 9월 6일(토)  | 일산파주   | 일산비전센터  | 19:00 |
| 9월 6일(토)  | 성북     | 대학로 이룸  | 14:30 |
| 9월 6일(토)  | 김포     | 비전홀     | 16:00 |
| 9월 7일(일)  | 특별한초대  | 순형홀     | 18:00 |
| 9월 9일(화)  | 가정사역   | 시온홀     | 18:00 |
| 9월 9일(화)  | 마포     | 비전홀     | 18:00 |
| 9월 10일(수) | OCC    | 두란노홀    | 18:00 |
| 9월 14일(일) | 고양은평   | 만리포 수련원 | 9:00  |
| 9월 14일(일) | S브릿지   | 두란노홀    | 16:00 |

| 양재       |      |             |       |
|----------|------|-------------|-------|
| 날짜       | 공동체  | 장소          | 시간    |
| 9월 4일(목) | 서초A  |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 20:00 |
| 9월 4일(목) | 서초B  |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 20:00 |
| 9월 4일(목) | 서초C  |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 20:00 |
| 9월 4일(목) | 서초D  |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 20:00 |
| 9월 4일(목) | 양재A  |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 20:00 |
| 9월 4일(목) | 양재B  |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 20:00 |
| 9월 4일(목) | 분당B  |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 20:00 |
| 9월 4일(목) | 경기A  |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 20:00 |
| 9월 4일(목) | 과천의왕 |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 20:00 |
| 9월 4일(목) | 하모니  |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 20:00 |
| 9월 5일(금) | 강남A  |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 20:00 |
| 9월 5일(금) | 강남B  |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 20:00 |
| 9월 5일(금) | 강남C  |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 20:00 |
| 9월 5일(금) | 강남D  |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 20:00 |
| 9월 5일(금) | 강남E  |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 20:00 |
| 9월 5일(금) | 송파A  |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 20:00 |
| 9월 5일(금) | 송파B  |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 20:00 |
| 9월 5일(금) | 도곡   |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 20:00 |
| 9월 5일(금) | 푸른누리 |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 20:00 |
| 9월 5일(금) | 분당A  |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 20:00 |

| 캠퍼스       |        |                 |       |
|-----------|--------|-----------------|-------|
| 날짜        | 공동체    | 장소              | 시간    |
| 9월 6일(토)  | 부천 믿음  | 본당              | 13:00 |
| 9월 6일(토)  | 부천 소망  | 비전홀             | 16:00 |
| 9월 5일(금)  | 부천 사랑  | 비전홀             | 20:00 |
| 8월 30일(토) | 부천 희망  | 외부              | 추후공지  |
| 9월 5일(금)  | 부천 화평  | 본당              | 20:00 |
| 9월 6일(토)  | 수원 동누리 | 기흥 ICT 벨리 C동 1층 | 16:00 |
| 9월 5일(금)  | 수원 서누리 | 기흥 ICT 벨리 C동 1층 | 추후공지  |
| 9월 2일(화)  | 수원 남누리 | 기흥 ICT 벨리 C동 1층 | 추후공지  |
| 9월 4일(목)  | 수원 북누리 | 기흥 ICT 벨리 C동 1층 | 추후공지  |
| 9월 5일(금)  | 대전 연합  | 본당              | 19:30 |
| 9월 3일(수)  | 남양주 연합 | 본당              | 19:30 |
| 9월 13일(토) | 평택 연합  | 사랑의교회 안성수영관     | 10:30 |
| 9월 4일(목)  | 인천 연합  | 본당              | 20:00 |
| 9월 11일(목) | 강동 연합  | 본당              | 20:00 |
| 9월 7일(일)  | 양지 연합  | 박모세홀            | 14:00 |
| 9월 5일(금)  | 영종     | 백향목홀            | 19:30 |
| 9월 7일(일)  | 제주 연합  | 본당              | 10:00 |

| 당회                                                                                         | 제직회                                                                        |
|--------------------------------------------------------------------------------------------|----------------------------------------------------------------------------|
| 일시: 2025년 8월30(토), 오전 6시<br>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비전홀<br>안간: 평남노회 청원<br>대상: 전임교역자, 사역, 시무, 명예, 협동장로 | 일시: 2025년 8월 31일(일), 2부예배 후<br>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br>안간: 평남노회 청원<br>대상: 모든 제직 |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여호수아〉 5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시는 내용입니다. 요단 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만, 하나님은 곧바로 가나안 정복을 향한 전쟁을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세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너머에 올바른 영적 생활보다는 계속 기적을 바라면서 믿음의 생활인지, 요행을 바라는 삶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에 빠지곤 합니다. 기적적인 요단 강 도하 이후 하나님이 세 가지를 명령하심으로 그들이 승리를 올바르게 경험하도록 인도하십니다.

## “할례를 행하라”

첫째,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를 시행하도록 하신 이유는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입니다. 가나안 민족과 싸워야 하는 시점을 앞두고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바로잡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단 강을 건너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의 모든 민족의 마음이 녹아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임을 아셨기에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지만, 이 시점에는 ‘이집트의 수치를 끊어내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수 5:9). 이 세대는 사실 이집트 경험에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수치가 끊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시대와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원리와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 할례 받지 못했고, 이집트를 가보지 않은 세대

에게 이집트의 수치가 굴러내 버린 것입니다. ‘길갈’이라는 단어의 뜻이 ‘굴러내 버리다’입니다. 이집트의 수치가 끊어진다는 것은 이집트에서 종 되었던 삶의 수치를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집트에서 더 잘 살았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와 메추라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날마다 물 부족을 느꼈습니다. 반면 이집트의 삶은 풍족했습니다. 가장 번성한 나라였습니다. 단지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풍족해도 신분이 종 된 것은 수치스러운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힘들어도 자유의 삶을 사는 게 오히려 복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자라 난 이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이집트의 수치를 끊어 버린 것은 당시 백성들뿐 아니라 이 시대 사람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 통해서 할례가 세례의 의미로 전환되는 것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이집트의 수치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포로 되었던 모든 삶을 가리킵니다. 세상은 그저 풍족하게만 살면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풍족해도 죄의 종 된 삶은 수치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종 된 삶의 수치를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이어집니다.

할례는 옛 언약의 증표지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증표입니다. 할례는 사람의 손으로 행하지만, 세례는 성령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례를 가리켜 ‘마음의 할례’ 혹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했습니다(골 2:11~12).

구약의 할례를 신약의 세례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곧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수치를 끊어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할례가 세례로 이어지는데, 그 세례란 그리스도와 연합해 하나님의 자녀 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세례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옛 사람의 죽음임을 믿음으로 이집트의 수치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길갈을 경험한 성도가 됩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성도들이 세례를 꼭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고백하고, 마음의 할례 곧, 그리스도와 연합해 과거 죄의 종 되었던 수치를 끊어내는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됨을 확증하는 통과 예식입니다.

## “유월절을 지키라”

둘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 평지에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은 어린양의 피를 바른 모든 이집트의 가정을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다, 넘어갔다, 유월했다는 의미입니다. 핵심은 흠 없는 어린양의 희생을 통해서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입니다. 유월절 어린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때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찬으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전환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임을 확증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세례와 성찬의 의미로 연결됩니다.

##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셋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준비를 요구하십니다.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 이면에는 지도자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체험하고, 비전을 받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비전 앞에 순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혼자 여리고 들판에 나아갑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칼을 든 이는 여호와와 군대 장관입니다.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 들고 그 앞에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우리 원수의 편이요?’”(13절).

자신의 편이면 싸울 필요가 없고, 원수의 편이면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칼을 든 이의 대답이 특이합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와 군사령관으로 왔다.’”(14절a).

동문서답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조건적인 함께하심이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순종이 조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이 만일 가나안 정복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정착했지만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가나안 민족과 동일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진노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려는 노력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호와와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를 질문합니다(14절b).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내 편이 됩니다. 하나님께 지금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면 “아니다. 나는 여호와와 군사령관이다”라는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누군가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15절). 여호수아에게 주신 세 가지 명령은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과 동일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이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제2의 모세로 부름을 받은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는 하나님의 종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순종의 자리에 서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항복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정복된 자가 될 때 주어진 소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례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님의 자녀 됨을 경험하는 게 세례공동체입니다. 또 성찬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성찬공동체입니다. 순종공동체도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 된 공동체로서, 그분이 명하시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그 공동체가 될 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우리가 밟는 땅마다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증인의 삶

## 고난의 자리, 하늘이 열리다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재위 A.D. 81~96)는 자신을 ‘주님이자 신(Dominus et Deus)’이라 칭하게 하며, 황제 숭배를 신전과 제사를 통해 국가 체제의 일부로 제도화했다. 이는 제국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정치 전략이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의 정체성을 부정하라는 강요였다. 결국,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밧모 섬에 유배된다(계 1:9). 이는 단순한 종교 탄압이 아니라 로마 질서에 반하는 ‘위협’으로 간주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난 듯한 그 고난의 자리, 절망과 고립의 섬 밧모에서 요한은 무너지는 세상이 아니라 열리는 하늘을 보았다. 성령에 감동된 그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승리하신 어린양,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보게 된다. 가장 어린 제자였던 요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지닌 그는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있었다. 고난 속에서 열린 하늘은 그에게 진정한 소망과 궁극적 승리를 보여주었다.

역사는 결코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역사의 주인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시다. 자신을 신이라 칭하며 교회를 짓밟던 도미티아누스는 궁정 쿠데타로 암살되었고,

그의 몰락과 함께 요한의 사슬도 풀렸다. 밧모 섬 유배는 1~2년에 불과했으며, 그 시간은 승귀(昇貴)하신 예수님이 거룩한 계시를 보여주신 은총이었다. 요한은 석방되어 에베소로 돌아가 생애 마지막까지 사랑의 사도, 진리의 충성된 증인으로 성도들을 목양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영을 분별하라.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으로 진리를 지켜라. 그 길이 바로 어린양 예수를 따라 걷는 길이다.”

“두려움과 혼란, 세속의 압력 속에서도 요한처럼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영을 분별하고,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

1900여 년이 흐른 어느 날, 한 사람이 흐려진 세상을 응시했다. 미국 역사상 첫 가톨릭 대통령 존 F. 케네디(재임 1961~1963)는 대선 과정에서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강조했다. 그로 인해 공교육 현장에서 종교적 색채를 제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직접적인 탄압은 없었지만, ‘정교분리’의 과도한 해석은 성경 낭독과 기도를 금지하는 판결로 이어졌다. 1962~1963년, 미국 대법원은 공립학교 내 기도와 성경 읽기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아이들은 공교육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

라는 진리를 배우지 못하게 되었다. 진화론은 과학의 이름으로 자리 잡았으며, 도덕 교육은 상대주의로 기울기 시작했다.

데이비드 노에벨(David Noebel)은 이러한 시대의 어둠을 직시했다. 그는 1960~70년대 미국 공교육이 기독교 신앙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음을 인식했다. 정교분리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교육 현장의 세속화가 미래 세대를 영적으로 실명하게 만들고 있다는 위기의

은 다음세대의 눈을 밝혀주고 있다.

밧모 섬의 돌길에서도, 에베소의 강단에서도, 그리고 세속화된 교실 한가운데에서도 하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열려 있다. 고난은 지금도 존재하고,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지만, 그 고난의 자리에서야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우리는 들리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배우게 된다. 이 땅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궁극적 회복,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간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밧모 섬과 같은 현실 속에 살아간다. 두려움과 혼란, 세속의 압력 속에서도 요한처럼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영을 분별하고,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 기독교 세계관은 현실 도피가 아니다. 오히려 그 현실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진리와 사랑 사이의 균형을 붙들고 살아가는 충성된 증인의 삶이다.

“흔들리는 세상, 그러나 시선은 흔들리지 말고 하늘을 향하라. 하늘을 본 자가 땅을 밝힌다.”



강애리 목사  
(온누리세계관학교,  
바른교육진흥원)

## 특별기고

## 비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세계관

“이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참된 말이다. 지난 몇 달은 이 말씀이 더욱 절절하게 느껴졌다.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지구의 기아 위기, 지난주 한 할아버지와 그의 손녀를 포함해 세명의 생명을 앗아간 오스틴의 타겟 매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텍사스에서 시작된 참혹한 홍수로 점철된 이번 여름의 고통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우리는 미스틱 캠프에서 소녀들이 겪은 일에 대한 보도에 몸서리쳤고, 27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에 애도했다.

비극은 인생과 세상에 대한 우리의 가장 깊은 신념을 드러낸다. 그것은 단지 신념이 무엇인지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신념이 ‘충분히 큰가’를 시험한다. 회의론자들은 흔히 악과 고통의 문제가 기독교에만 해당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모든 종교와 세계관은 세상이 왜 이런지를 설명해야 한다.

자연주의적 현실 해석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 세상은 순전히 물질적 원인과 과정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는 세상이 어떠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고, 단지 있는 그대로일 뿐이다. 따라서 텍사스의 소녀들에게 일

어난 일이 ‘악’이 아니라 단순히 불운일 뿐이라는 것이다.

불교나 힌두교 같은 동양 종교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일한 세계관을 공유하는 뉴에이지 사상은 실재하는 악의 존재를 부정한다. 물질세계가 환상이라면, 물질세계를 해치는 악도 환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설명이라기보다 회피이다. “왜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 대신 “왜 나쁜 일이라는 환상이 일어나는가?”라고 묻게 되는 것이다.

포스트모던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우리는 각자의 관점과 경험 안에 갇혀 있으므로 결코 실재에 접근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악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조차도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은가. 포스트모던의 관점주의에서 파생된 최근의 산물인 비판 이론은 악을 억압으로 환원하고, 특정 집단에 그 책임을 돌린다. 그러나 그 설명은 자연재해나 억압받는 집단 내부에서 발생한 악행을 설명하지 못한다.

악의 존재를 설명하고 동시에 나아갈 길을 제시할 만큼 충분히 큰 유일한 세계관은 기독교다.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온전히 설명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세상에 선을 가져올 놀라운 능력을 지녔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악과 고통을 세상에 불러올 놀라운 능력을 지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아름다움과 진리와 선으로 충만하지만, 우리의 죄는 이 세상을 깊고도 심각하게 깨어지게 하였다. 그 결과, 자주 우리의 통제를 훨씬 넘어서는 해로운 힘의 희생자가 되곤 한다. 세상과 인간의 악을 악으로 인식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주의 의미와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를 암시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심각한 악 속에서도 나타나는 영웅적 행위와 희생을 진실로 선한 것으로 인식한다. 그것 또한 의미가 있다.

텍사스 홍수 때, 26세 해안경비대 구조 잠수사 ‘스콧 루스칸’은 그의 첫 임무에 투입되었다. 현장에 있던 유일한 구조자로서 그는 미스틱 캠프의 아이들과 지도자 165명을 구해냈다. 심지어 그가 구한 소녀들이 부탁하자 몇몇 인형들까지 함께 구해주었다. 그런데도 비판 이론의 틀 속에서는 그러한 남성적 영웅주의가 유해하고 억압적이라고 여겨진다. 만약 초월주의적 세계관이 주장하듯 물질세계가 환상이라면, 소녀들의 고통도, 루스칸의 영웅적

행위도 단지 환상일 뿐이다. 만약 생명이 신다원주의적 ‘적자생존’의 이야기대로 진화했다면, 루스칸이 한 일에는 어떠한 명예도 없고, 그날 밤 목숨을 잃은 생명에도 아무런 가치가 없었을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끔찍한 비극을 진정 끔찍한 것으로 본다. 악과 고통 앞에서 우는 것도, 심지어 분노하는 것도 옳다. 이 세상은 마땅히 그러해야 할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지 않는다. 악이 세상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은 그것을 대면하고,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을 보호하시며,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악을 제거하시기 위해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 왜 특정한 악이 발생하는지는 늘 의문으로 남겠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우리의 노력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이다. 감지네 샘와이즈가 말했듯, 세상에는 선이 있고, 그것은 싸울 가치가 있다.

/ 존 스톤스트리트(척 콜슨 기독교세계관 센터 대표), 티모시 패짓(역사신학 박사)

원문: breakpoint(20250818)

## 동대문중랑공동체

## 춘천새순교회

동대문중랑공동체는 ‘기도의 향기’를 주제로 지난 7월 26일(토)과 27일(일) 강원도 춘천 새순교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1898년 남감리회 선교부가 강원도 김화와 춘천에 전도인들을 파송하며 선교의 막이 열렸다. 바로 그 장소인 춘천에 세워진 춘천새순교회는 올해 초 온누리교회의 형제 교회가 되었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양천공동체와 서산 온누리교회를 담당했던 임용성 목사님이 부임해 Acts29 비전을 함께 써 내려가고 있다.

여러 번 아웃리치 사전 답사를 하면서 생가나는 단어가 있었다. 바로 ‘회복’이다. 오랜 세월로 인해 여기저기 무너진 교회의 회복, 여러 아픔을 겪었음에도 끝까지 춘천새순교회에 남은 성도님들의 마음 회복, 그리고 동대문중랑공동체 성도님들의 기도 회복을 소망했다. 이를 위해 매주 수요일 동대문중랑공동체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로 아웃리치를 준비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는 시설보수, 청소데코, 한방, 예배, 중보기도, 식사, 주차서를 등 7개 팀으로 나눠 사역했다. 시설보수팀은 아웃리치가 시작되기 한 주 전 7월 19일(토) 성령의 단비가 폭포수처럼 내리는 가운데서도 팀장님, 총무님과 함께 춘천새순교회를 다녀왔다. 3~4층 화장실 수전 수리를 했고, 7월 26일(토) 아웃리치 날에는 식당 전구를 일괄 교체했다. 각종 폐기물 처리, 목양실 가구 재배치, 지하 1



동대문공동체 아웃리치팀이 춘천새순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줄 떡을 포장하고 있다.

층부터 4층까지 미끄럼방지를 위한 논슬립 설치도 완료했다. 예배팀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각자 삶의 현장에서 일정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지속적인 연습을 했다. 아웃리치 당일 끊임없는 리허설을 통해 춘천새순교회에 오는 분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 이번만 아니라 아름다운 환경을 맡은 청소데코팀, 지역사회를 치료하며 하나님을 전한 한방팀, 지역사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관사님들과 연합해 섬긴 식사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주차서를 팀, 여러 사역을 하는 중에 어떠한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주신 중보기도팀이 있었기에 은혜 가득한 아웃리치가 가능했음을 고백한다. 섭씨 35도가 넘어 땀이 쉴 새 없이 흐르는 상황에서도 춘천새순교회 성도님들과 서로를 배려하며 돕고, 웃으면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이다. 이번 아웃리치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셨음을 느낄 수 있었다.

교회 역사를 설명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목사님과 장로님, 주일 새벽부터 교회 전체를 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비우고 청소하시는 장로님, 그 뜨거운 날에도 교회 밖에서 성도님들께 주보를 나눠주시며 인사하시는 장로님을 보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려왔던 것들을 그분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치열하게 지켜오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춘천새순교회 아웃리치는 동대문중랑공동체, CH PLUS, 동서울A공동체, 이수공동체 등 여러 공동체가 사역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며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각 공동체와 춘천새순교회가 협력하는 아웃리치를 통해 교회와 성도님의 마음이 회복되고,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날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한다. 춘천새순교회 임용성목사님의 소감으로 글을 마친다.

“함께한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 분 한분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새순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향기가 되었습니다.”



성정대 집사  
(동대문중랑공동체)

## 영등포구로공동체

## 연해주

이번 연해주 아웃리치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우수리스크 사이에 소재한 라즈돌노예를 방문해서 전영수, 장현미 선교사님이 개척한 5개 교회 중 한 곳과 운영 중인 신학교를 섬기는 일정이었다. 아웃리치팀원들은 두 달 전부터 총 7회의 준비모임을 가졌다. 선교사님과 사역, 아웃리치팀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러시아어 찬양을 두 곡 연습했다. 연해주의 고려인 이주와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역사, 북한 선교 사역 현황 등도 공부했다. 특히 평양 신학교 2회 졸업생으로 한국 최초 해외 파송 선교사로 연해주에서 사역한 최관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교지 방문과 아웃리치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고, 한국은 미국 등 서방 진영에 속한 비우호 국가로 분류되어 직항 항공편이 없다. 그래서 중국 베이징을 거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동해야 했다. 블라디보스톡 공항에 도착해서는 아웃리치팀원 전체가 한 명씩 별도의 밀폐된 방으로 불려가 심문과 스마트폰 검열을 받았다. 3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공항에 마중 나오신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안도감에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어렵게 시작한 연해주 아웃리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선교여행이었다. 전영수 선교사님은 코로나19 이후 5년 6개월 만



전영수 선교사가 운영하는 신학교에서 영등포구로공동체가 찬양하고 있다.

에 첫 아웃리치팀 방문을 감사하며 큰 힘을 얻었다고 고백하셨다. 30년 넘게 선교사로 사역했는데, 외환위기로 환율이 두 배 이상 올랐던 기간에도 온누리교회는 선교사 후원금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보내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고도 말씀하셨다. 파송한 선교사를 섬기고 후원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었다.

전영수 선교사님 부부는 현지에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인 신학교 졸업생을 담당 교역자로 세워져 자립하도록 도우셨다. 그들이 교회

를 이끌어 가도록 리더십을 이양하셨다. 이 일을 반복하며 총 5개 교회를 개척하셨다.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사님의 헌신을 직접 볼 수 있어서 감동이었다. 전영수 선교사님은 원래 북한 선교를 위해 중국에서 사역하던 중 감옥에 갇히는 등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했다. 중국에서 추방된 이후에는 북한을 섬길 수 있는 연해주로 이주하셨다고 했다. 선교사님이 개척한 5개 교회 중 3개는 연해주에서 북한으로 가는 주요 길목에 세워질 정도로 북한을 위한 전략적 선교

에도 힘쓰고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 비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선교사님은 신학교를 세워서 러시아 사람들을 제자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사람들을 세우고 계셨다. 신학교부를 할 여건이 되지 않는 이들을 데려다가 무료로 기숙사와 식사를 제공하며 섬기는 모습은 큰 감동이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전영수 선교사님과 함께 북한 선교를 위해 동역하는 두 선교사 가정과 교제하는 기회가 있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듯이 그 선교사님을 예비하심으로 북한 땅을 품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었다.

목사님을 비롯한 11명의 아웃리치팀원들과의 교제 또한 이번 아웃리치에서 얻은 귀한 열매였다. 팀원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웃리치를 위해 위험도 감수하면서 기도와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선교사님들을 섬기려는 마음이 귀한 분들이었다. 이번 아웃리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 고통받는 자들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는 분임을 가까이서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안태숙 집사  
(영등포구로공동체)

## 그만큼 귀한 선교여행

영화 ‘무명(無名)’을 보고



/ 정우근 다락방장(양재B공동체)

공동체와 함께하는  
‘영적 순례’

7월 7일 저녁 7시, 흔히 ‘행운의 칠’이라 불리는 숫자가 세 번이나 겹치는 날 양재B공동체 성도들이 복된 은혜의 약속처럼 여겨지는 이 시간을 함께 누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영화 ‘무명(無名)’을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관람하는 특별한 자리였다.

영화 상영에 앞서 우리 다윗4순은 극장 인근 식당에 모여 애찬을 나누었다. 따뜻한 식사와 사랑이 오가는 교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 됨을 경험했다. 그리고 극장에서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영화 ‘무명(無名)’을 품을 준비를 했다.

이 영화는 일제강점기 조선 땅에 복음 전하러 온 일본인 선교사들의 실화를 다룬 하이브리드 다큐멘터리다. 세상의 시각으로는 ‘원수의 나라’에서 온 이방인의 선교가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노리마츠 마사야스’와 ‘오다 나라지’라는 두 일본인 선교사의 삶은 조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의 통로가 되었다. 복음을 들고 조선 땅에 들어와 조선인의 삶을 살아내며 오직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려 했던 그들의 모습이 감동 그 자체다.

영화가 이어지는 내내 나와 공동체 식구들은 깊은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새겼다. ‘무명(無名)’이라 불렸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잊히지 않은 이름들이었다.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하늘나라에는 영원히 기록된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흔들며 깨우기에 충분했다. 영화를 보면서 문득 온누리교회가 해마다 일본에서 하는 ‘러브소나타’ 사역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연결된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의 논리와 국경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는 그저 감사와 감격으로 고개를 숙일 뿐이다.

이번 영화 관람은 단순한 문화 행사를 넘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는 ‘영적 순례’였다. 나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였다.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은 영화 ‘무명(無名)’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도 좋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온누리호스피스 봄학기 수료 간증



/ 박성은 사모(온누리호스피스)

호스피스, 그 깨달음

10년 동안 쉼 없이 달려왔던 직장의 갑작스러운 폐업과 함께 2025년을 맞이했다. 퇴근 후에도 업무의 연장이었던 고된 날들, 학업의 어려움과 사춘기로 힘들어하는 막내딸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죄책감, 친정어머니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계셨음에도 직장 일로 자주 찾아뵙지 못한 아쉬움이 늘 마음에 남아있었다. 그런 내게 직장 폐업은 휴가와 같은 뜻밖의 선물이었다. 이제야 비로소 숨을 고르고,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가족에게 온전한 시간을 쏟을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때 마침 어머니가 온누리호스피스 교육을 받으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매주 화요일 동행했다.

약 6년 전,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저서를 통해 삶의 마지막 단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호스피스 철학에 눈을 떴다. 교회 집사님이 호스피스 교육을 받는 모습을 보며 막연한 동경심을 품기도 했다. 그러다 호스피스가 내 삶에 더욱 구체적인 모습으로 다가왔다. 함께 일하던 동료의 어머니가 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셨다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셨다. 삶의 유한함과 마지막 순간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 이어서 친구 아버지가 뇌암 진단을 받으셨고, 역시 호스

피스 병동에서 3주 동안 평안한 시간을 보내시다 눈을 감으셨다. 친구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돌봐주신 호스피스 병동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 경험들은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마지막 순간에 대한 고민과 함께 호스피스라는 따뜻한 보살핌의 필요성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호스피스 교육을 통해 암 투병 환자들을 대하는 섬세한 마음가짐과 신중한 언어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진심으로 공감하고 경청하는 태도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지하는 따뜻한 격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생님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한 지혜와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하도록 돕는 호스피스의 숭고한 가치와 여정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도 느낄 수 있었다. ‘오늘이 마지막인 듯 살아가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 안에서 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의 중요한 가치임을 되새긴다. 교육에서 얻은 이 깨달음과 따뜻한 마음을 삶에서 실천해야겠다.

온누리M미션 봉사자 교육 참가자 간증



/ 단진형 성도(여호수아공동체)

“이주민을 향한 사랑”

지난해 12월, 다락방 담당 사역지라는 이유로 안산M센터 파워웨이브에서 진행되는 크리스마스 블레싱에 참가했다. 처음에는 이주민 아이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막상 마주해 보니 정서나 언어 모두 우리와 다른 게 전혀 없었다. 크리스마스 블레싱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이주민에 관한 귀한 생각이었다.

온누리M미션 봉사자 교육도 마찬가지였다. 아웃리치 일환으로 듣게 된 교육이었는데,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주민사역을 이해하게 되는 특별한 기회였다. 봉사자 교육이 아니었다면 이주민과 관련된 ‘룻의 이야기’나 온누리교회가 오래전부터 걸어왔던 이주민사역과 온누리M미션의 비전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다. 돌아켜보면 지난해 12월 우연히 참가한 온누리M미션 행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같다.

온누리M미션 봉사자 교육을 들으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은 ‘나의 행함과 눈으로 결실을 볼 수 있는 것도 이주민 사역이요, 나로 인해 뿌려진 씨앗이 점점 자라나 먼 훗날 하나님의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 또한 이주민 사역’이라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쉽지 않고, 생각해야 할 것도 많다. 서두르지 않아야 하고, 나나, 온누리교회, 한국식)를 주장하면 안 되며, 들쭉날쭉해서도 안 된다. 나를 포기하는 것이 사도행전적 자세이기 때문이다. 봉사자 교육하는 강사님들의 말씀을 기억하면 될 것 같다.

“이주민을 향한 사랑.”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이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이들이 이 낯선 땅에서 힘들어한다고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오직 하나님과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행하는 이주민 사역이 이 세상에 사랑이 넘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스토리텔링이 될 것이다. 온누리M미션 봉사자 교육은 이 소망을 봉사자들과 함께 품는 귀한 시간이었다.

순 아웃리치 간증



/ 유영준 집사(김포공동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

지난 7월 6일, 김포공동체 소망2순 순원들과 함께 서울역 앞에 있는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처소 엘리프하우스를 찾았다. 그곳에서 유경우 순장과 순원 17명(어린이 5명 포함)이 주일 예배 특송을 했다. 아이들이 직접 키보드, 기타, 플루트, 바이올린을 연주했고 순원들은 카혼, 에그셰이커 등 타악기를 연주하며 찬양 ‘비 준비하시니’와 ‘실로암’을 불렀다.

남대문희망공동체는 서울역 일대 쪽방촌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배공동체다. 서울역 인근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배와 나눔, 심방과 양육 등을 하면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돕고 있다. 알코올, 마약 등 중독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상담과 치료도 한다.

매주 주일에는 양재온누리교회 여호수아공동체 청년들이 서울역 주변 쪽방촌을 방문해서 혼자 외롭게 사는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 주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만나는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한다. 이처럼 남대문희망공동체는 온누리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 섬기는 사역지다.

우리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매주 이곳에서 찬양사역자로 섬기는 김포공동체 소망2순 순원 김용길 집사님을 응원하기 위해서였다. ‘심방 특송을 한번 하자’는 순원들의 마음이 모여 생각지도 못했던 ‘순 아웃리치’를 했다.

순예배 종강 이후에도 찬양 연습을 위해 매주 금요일 늦은 저녁에 모였다.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이은진 집사님과 박혁호 집사님 부부가 찬양 콘티를 써서 지휘를 해주셨다. 학원에 있는 각종 타악기를 동원해 순원 모두가 연주자가 될 수 있었다.

남대문희망공동체 남정진 장로님은 “그동안 여러 공동체가 방문한 적은 있지만, 한 개 순이 와서 사역을 돕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멀리 김포에서 아이들과 함께 주일예배를 섬기기 위해 와준 것만으로도 큰 감동이었다”고 인사하셨다.

이날 이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 일회성 방문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특송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앞으로도 김포공동체 소망2순 ‘가족찬양단’의 공연이 계속될 것 같다.



사진은 지난 8월 22일 열린 온누리복지재단 창립 26주년 기념행사.

## “진정한 이웃 사랑 실천이 정체성!”

### 온누리복지재단 창립 26주년 기념행사

온누리복지재단이 창립 26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8월 22일(금) 오전 11시 서초구립느티나무센터 아트홀에서 온누리복지재단 창립 26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온누리복지재단 리더십과 임직원, 후원자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정호욱 이사 대표기도, 송영범 대표이사 승진자 임명, 장기근속자 표창, 감사패 수여,

기념사, 이재훈 위임목사 축하 영상 상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실황을 유튜브로 생중계 했다.

송영범 대표이사는 “사회적인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주변의 힘든 이웃을 살피고 돌보면서 진정한 이웃 사랑을 전하는 온누리복지재단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전한다”면서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는 온누리복지재단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온소미 장학금 전달식’ 개최

#### 서울신학대 오아름 학생이 주인공

온누리복지재단이 지난 8월 13일(수) 온소미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주인공은 오아름 학생(서울신학대 관광경영학과 3학년)이다.

오아름 학생은 “온소미 장학금 덕분에 학업을 지속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면서 “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리어가 되어서 세상에 따뜻함을

더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온누리복지재단은 불우 청소년, 탈북민, MK(선교사 자녀) 등이 학업을 계속 이어가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도록 돕기 위해 온소미 장학사업을 하고 있다.

후원 문의: 02-3215-3413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 성찬용 포도즙 제조

서빙고 9월 1~2일, 양재 9월 2일

성찬식에서 사용할 포도즙을 서빙고온누리교회 9월 1일(월)과 2일(화), 양재온누리교회 9월 2일(화) 교회 식당에서 제조한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성찬팀, 임직 봉사자, 양재

온누리교회 권사회, 성찬팀, 임직 봉사자가 참여한다. 이 기간 교회 식당은 운영하지 않는다.

문의: 02-3215-3533(서빙고)

02-570-7433(양재)

## 기적을 만드는 북클럽 시즌2 참가자 모집

8월 28일부터 매주 목 오전 9시 30분 온라인

기적을 만드는 북클럽 시즌2 참가자를 모집한다. 8월 28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구글 폼(QR 참고)이나 전화(010-4047-0717)로 하면 된다. 회비는 월 7만 원(매월 4회 기준, 첫 주 선납).

기적을 만드는 북클럽 시즌2에서는 피터 스카지코(Peter Scazzero) 목사의 저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Emotionally Healthy Spirituality)>을 영어 원서로 읽는다. 이정숙 교수(더맵글로벌 대표, 전 햇빛트리 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교회사 교수)가 인도한다.

기적을 만드는 북클럽 수익금으로 더맵글로벌의 사역을 후원한다.

문의: 010-4047-0717



####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온누리 호스피스 전문봉사자 교육 참가자 모집

온누리 호스피스 전문봉사자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관 지하 2층 성가대실(구 비전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8만 원.

문의: 010-3412-7966

###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138기 참가자 모집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138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1일부터 4주 동안(1, 2주차 토요일 당일, 3~4주차 토·일 1박2일) 오후 2시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 40만 원(자녀 동반 1인당 7만 원 추가).

문의: 남편 010-4928-0707

아내 010-3340-7039

## ‘휘튼가스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9월 18일 오후 7시 양재온누리교회

휘튼가스펠아카데미(WGA, Wheaton Gospel Academy) 수강생을 모집한다. 9월 18일(목) 오후 7시 양재온누리교회에서 개강한다. 2년, 4학기 운영한다. 학비는 학기당 250만원(온라인으로 수강하면 200만 원)이다.

온누리교회 및 복음과도시 이사교회 성도, 2학기 선납, 2명 이상 동반 등록하면 각 항목 당 5%씩 할인

을 받을 수 있다.

휘튼가스펠아카데미에 등록하려면 먼저 서류 접수를 해야 한다. 휘튼가스펠아카데미 홈페이지(www.wheatonga.org)에서 지원서류를 다운로드 작성하고, 우편이나 이메일(wheatongospel@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867-8425

/ 박지혜 기자

## 전도폭발훈련학교 참가자 모집

서빙고 9월 1일~12월 1일, 양재 9월 5일~12월 7일

전도폭발훈련학교 40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서빙고 월요일 9월 1일부터 12월 1일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빙고 콘서트홀, 서빙고 월요일 저녁반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콘서트홀에서 진행된다.

38기 양재 주간반과 주말반도 모집한다. 양재 주간반 9월 5일에서 12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양재 JDS홀, 양재 주말반 9월 7일부터 12월 7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킹스채플교회(서초구 논현로

175 신한빌딩)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서빙고 9월 15일까지, 양재 주간반 9월 11일, 양재 주말반 9월 14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8만 원.

문의:

서빙고 월요일반(010-3801-1215)

서빙고 월요일저녁반(010-4211-0163)

양재 주간반(010-4041-5368)

양재 주말반(010-2739-4433)

/ 박지혜 기자



강남B공동체 아웃리치 ... 강남 B공동체가 지난 8월 13(수)~18일(월) 호치민 비전트리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레크리에이션 행사를 개최했다.

구찌 고아원에서는 장기자랑, 한국어 말하기 대회, 달란트 행사 등을 했다. 13년 동안 현지 사역을 이어온 선교사 부부를 축복하는 시간도 가졌다.

## NGO 더멋진세상, 코트디부아르 PRS(공동체성경읽기) 성공적 운영

NGO 더멋진세상이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 PRS(공동체성경읽기) 사역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지난 1년 동안 지엔엠글로벌문화재단과 협력해 코트디부아르 현지 교회에 PRS(공동체성경읽기) 사역을 도입하고, 차세대 신앙 교육을 지원했다.

현지 11개 교회에 PRS(공동체성경읽기) 장비를 설치하고 현지 교회 리더십 245명의 역량을 강화했다. 170개 청취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모니터링하고, ‘PRS 다음 세대’ 프로그램을 20개 센터에 도입해 아동 1,500명에게 참여를 독려했다.

/ 박지혜 기자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좌측 QR 코드를 찍으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http://www.onnuri.org

|                                                                                                                                                                                                                                                                                                                                                                                                                                                                                                                                                                                                                                                                                                                                                                                                                                                        |                                                                                                                                                                                                                                                                                                                                                                                                                                                                                                                                                                                                                                                                                                               |                                                                                                                                                                                                                                                                                                                                                                                                                                                                                                                                                                                                                                                                                                                                                                                                                                                           |                                                                                                                                                                                                                                                                                                                                                                                                                                                                                                                                                                                                                                                                                                                                                                                                                                                                                                                    |                                                                                                                                                                                                                                                                                                                                                                                                                                                                                                                                                                                                                                                                                                                                                                                                                                                                                                                                                                            |
|--------------------------------------------------------------------------------------------------------------------------------------------------------------------------------------------------------------------------------------------------------------------------------------------------------------------------------------------------------------------------------------------------------------------------------------------------------------------------------------------------------------------------------------------------------------------------------------------------------------------------------------------------------------------------------------------------------------------------------------------------------------------------------------------------------------------------------------------------------|---------------------------------------------------------------------------------------------------------------------------------------------------------------------------------------------------------------------------------------------------------------------------------------------------------------------------------------------------------------------------------------------------------------------------------------------------------------------------------------------------------------------------------------------------------------------------------------------------------------------------------------------------------------------------------------------------------------|-----------------------------------------------------------------------------------------------------------------------------------------------------------------------------------------------------------------------------------------------------------------------------------------------------------------------------------------------------------------------------------------------------------------------------------------------------------------------------------------------------------------------------------------------------------------------------------------------------------------------------------------------------------------------------------------------------------------------------------------------------------------------------------------------------------------------------------------------------------|--------------------------------------------------------------------------------------------------------------------------------------------------------------------------------------------------------------------------------------------------------------------------------------------------------------------------------------------------------------------------------------------------------------------------------------------------------------------------------------------------------------------------------------------------------------------------------------------------------------------------------------------------------------------------------------------------------------------------------------------------------------------------------------------------------------------------------------------------------------------------------------------------------------------|----------------------------------------------------------------------------------------------------------------------------------------------------------------------------------------------------------------------------------------------------------------------------------------------------------------------------------------------------------------------------------------------------------------------------------------------------------------------------------------------------------------------------------------------------------------------------------------------------------------------------------------------------------------------------------------------------------------------------------------------------------------------------------------------------------------------------------------------------------------------------------------------------------------------------------------------------------------------------|
| <p><b>국내 온누리교회</b></p> <p><b>이재훈</b> 위임목사</p> <p>• 서빙고<br/><b>박종길</b> 목사 (02) 793-9686(대표)<br/>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p> <p>• 양재<br/><b>강부호</b> 목사 (02) 573-9686(대표)<br/>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br/>햇빛산교센터</p> <p>• 부천<br/><b>정재욱</b> 목사 (032) 322-9686<br/>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p> <p>• 수원<br/><b>김승훈</b> 목사 (031) 895-6500<br/>1706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p> <p>• 대전<br/><b>김상수</b> 목사 (042) 825-3642-4<br/>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p> <p>• 남양주<br/><b>이기복</b> 목사 (031) 515-3521-4(대표)<br/>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p> <p>• 평택<br/><b>신동식</b> 목사 (031) 651-9680(대표)<br/>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p> <p>• 인천<br/><b>김승수</b> 목사 (032) 437-9686(대표)<br/>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p> <p>• 강릉<br/><b>이준호</b> 목사 (02) 475-9686<br/>06335 서울시 강릉구 전호대로157길 14<br/>나비빌딩 11, 12층</p> <p>• 양지<br/><b>박철용</b> 목사 (031) 331-8171</p> | <p>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2번길 20</p> <p>• 영종<br/><b>도육환</b> 목사 (032) 752-7937<br/>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p> <p>• 제주<br/><b>노규석</b> 목사 (064) 794-8090<br/>635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화역사로 601</p> <p>• 안산 온누리M센터<br/><b>김태완</b> 목사 (031) 491-9650<br/>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p> <p>■기도처</p> <p>• 태안온누리<br/><b>최영민</b> 목사 070-8627-7676<br/>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br/>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p> <p>• 서산온누리<br/><b>최영민</b> 목사 (041) 665-9686<br/>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p> <p>• 봉화온누리<br/><b>엄정순</b> 권사 (054) 673-7428<br/>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p> <p>■AMA 형제교회</p> <p>• 춘천 새순교회<br/><b>임용성</b> 목사 (033) 264-0291<br/>강원 춘천시 영서로 2000</p> <p>■AMA 협력교회</p> <p>• 진새골온누리<br/><b>주수일</b> 장로 (031) 767-2776<br/>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p> | <p><b>해외 온누리교회</b></p> <p>■미서부</p> <p>• 엘바인<br/><b>박신용</b> 목사 1-949-261-9100<br/>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p> <p>• 로스앤젤레스<br/><b>이정영</b> 목사 1-213-382-5658<br/>743 South Grand View st.<br/>Los Angeles, CA 90067, USA</p> <p>• 샌디에이고<br/>1-619-847-4147<br/>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p> <p>• 산타모니카<br/><b>정장철</b> 목사 1-213-235-5791<br/>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p> <p>• 괌<br/><b>김철철</b> 목사 1-671-734-8522<br/>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p> <p>■미동부</p> <p>• 보스턴<br/><b>김철진</b> 목사 1-781-933-7044<br/>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p> <p>• 시카고<br/><b>이종재</b> 목사 1-630-753-9191<br/>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p> <p>• 뉴욕IN2<br/><b>심상현</b> 목사 1-212-427-2055<br/>35 W 31st street 5th, New York, NY, 10001</p> <p>• 뉴저지<br/><b>Marc Choi</b> 목사 1-201-461-4010</p> | <p>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p> <p>■미북부</p> <p>• 포틀랜드<br/><b>이성권</b> 목사 1-503-628-2000<br/>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p> <p>• 앵커리지<br/><b>서재범</b> 목사 1-907-569-9191<br/>4801 old seaward HWY Anchorage, AK 99503</p> <p>• 밴쿠버<br/><b>이재정</b> 목사 1-604-888-0092<br/>19711 86th Ave.<br/>Langley, BC V2Y 1Z5 Canada<br/>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br/>168th Street, Surrey</p> <p>■오세아니아</p> <p>• 시드니<br/><b>전현규</b> 목사 61-2-9649-1180<br/>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p> <p>• 오uckland<br/><b>조준목</b> 목사 64-21-0810-3132<br/>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p> <p>• 홍콩<br/><b>문영재</b> 목사 852-2506-0089<br/>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p> <p>■일본</p> <p>• 동경<br/><b>유우자와 마키토</b> 목사 81-3-5637-3210<br/>(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p> <p>• 문봉주 목사 81-6-6121-2015</p> | <p>(542-0083) Naniwa 3F 1-3-19 Higasinsaisabasi Chuoku Osaka Japan</p> <p>• 우에다<br/><b>히카마타 미키</b> 목사 81-26-821-4566<br/>(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p> <p>• 요코하마<br/><b>니시아마 신이치</b> 목사 81-45-641-6468<br/>(231-0012)Ya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p> <p>• 아치오<br/><b>요시하라 마나부</b> 목사 81-47-482-1299<br/>(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p> <p>• 나고야<br/><b>정호석</b> 목사 81-52-938-5011<br/>(454-0874) AICHI-KEN NAGOYA-CI<br/>NAKAGAWA-KU SHIMAI-CHO61 EHWA<br/>DAIAMOND 2F</p> <p>• 교토<br/><b>권영환</b> 목사 81-75-748-9303<br/>(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amp;2F)ukyo-ku, Kyoto-si</p> <p>■중동</p> <p>• 아부다비<br/><b>김도국</b> 목사 971-56-385-4238<br/>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p> <p>■동남아시아</p> <p>• 베트남<br/><b>이길택</b> 목사 84-8-5412-2773<br/>3SL 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p> |
|--------------------------------------------------------------------------------------------------------------------------------------------------------------------------------------------------------------------------------------------------------------------------------------------------------------------------------------------------------------------------------------------------------------------------------------------------------------------------------------------------------------------------------------------------------------------------------------------------------------------------------------------------------------------------------------------------------------------------------------------------------------------------------------------------------------------------------------------------------|---------------------------------------------------------------------------------------------------------------------------------------------------------------------------------------------------------------------------------------------------------------------------------------------------------------------------------------------------------------------------------------------------------------------------------------------------------------------------------------------------------------------------------------------------------------------------------------------------------------------------------------------------------------------------------------------------------------|-----------------------------------------------------------------------------------------------------------------------------------------------------------------------------------------------------------------------------------------------------------------------------------------------------------------------------------------------------------------------------------------------------------------------------------------------------------------------------------------------------------------------------------------------------------------------------------------------------------------------------------------------------------------------------------------------------------------------------------------------------------------------------------------------------------------------------------------------------------|--------------------------------------------------------------------------------------------------------------------------------------------------------------------------------------------------------------------------------------------------------------------------------------------------------------------------------------------------------------------------------------------------------------------------------------------------------------------------------------------------------------------------------------------------------------------------------------------------------------------------------------------------------------------------------------------------------------------------------------------------------------------------------------------------------------------------------------------------------------------------------------------------------------------|----------------------------------------------------------------------------------------------------------------------------------------------------------------------------------------------------------------------------------------------------------------------------------------------------------------------------------------------------------------------------------------------------------------------------------------------------------------------------------------------------------------------------------------------------------------------------------------------------------------------------------------------------------------------------------------------------------------------------------------------------------------------------------------------------------------------------------------------------------------------------------------------------------------------------------------------------------------------------|

## 섬기는 분들

### ■위임목사

이재훈

### 국내 온누리교회

####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준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용 도육환 노규석

####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은주 강지영 고길현  
권용길 김혜영 김도윤 김래위  
김미정 김상규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안 김용식  
김요성 김용민 김용산 김윤식

#### ■부목사(파트)

가 나 김은하 김중규 김해경  
김종균 김봉주 김지훈 김재욱  
김종관 김봉주 김지훈 김재욱  
김종관 김봉주 김지훈 김재욱

####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명주 강하람 강현구  
구길모 권영찬 권애림 권평호  
권혁성 김기호 김경배 김기태  
김동우 김병초 김미리 김민수

#### ■전도사(전임)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 ■전도사(전임)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 ■전도사(전임)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 ■전도사(전임)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 ■전도사(전임)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 ■전도사(전임)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 ■전도사(전임)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 ■전도사(전임)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 ■전도사(전임)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 ■전도사(전임)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 ■전도사(전임)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 ■전도사(전임)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 ■전도사(전임)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 ■전도사(전임)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 ■전도사(전임)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 ■전도사(전임)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 ■전도사(전임)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 ■전도사(전임)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 ■전도사(전임)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 ■전도사(전임)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 ■전도사(전임)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김민희 김나미 김승희 김소망

#### 고백서

####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안환균  
이기복 한정국

#### ■부목사(파트)

김동규 김병철 김승훈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 ■부목사(파트)

김동규 김병철 김승훈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 ■부목사(파트)

김동규 김병철 김승훈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 ■부목사(파트)

김동규 김병철 김승훈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 ■부목사(파트)

김동규 김병철 김승훈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 ■부목사(파트)

김동규 김병철 김승훈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 ■부목사(파트)

김동규 김병철 김승훈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 ■부목사(파트)

김동규 김병철 김승훈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 ■부목사(파트)

김동규 김병철 김승훈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 ■부목사(파트)

김동규 김병철 김승훈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 ■부목사(파트)

김동규 김병철 김승훈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 ■부목사(파트)

김동규 김병철 김승훈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 ■부목사(파트)

김동규 김병철 김승훈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 ■부목사(파트)

김동규 김병철 김승훈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 ■부목사(파트)

김동규 김병철 김승훈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 ■부목사(파트)

김동규 김병철 김승훈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 ■부목사(파트)

김동규 김병철 김승훈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 ■부목사(파트)

김동규 김병철 김승훈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 ■부목사(파트)

김동규 김병철 김승훈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 ■부목사(파트)

김동규 김병철 김승훈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 ■부목사(파트)

김동규 김병철 김승훈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 ■부목사(파트)

김동규 김병철 김승훈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 ■부목사(파트)

김동규 김병철 김승훈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 ■부목사(파트)

김동규 김병철 김승훈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 ■부목사(파트)

김동규 김병철 김승훈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 ■부목사(파트)

김동규 김병철 김승훈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김지훈 김진미 김진숙 김승수

#### 권용한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 권철준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 권경선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 권경철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 권준환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 권준환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 권준환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 권준환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 권준환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 권준환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 권준환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 권준환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 권준환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 권준환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 권준환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 권준환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 권준환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 권준환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 권준환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 권준환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 권준환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 권준환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 권준환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 권준환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 권준환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김관식 김남식 김남일 김남일

#### 권준환

WHEATON  
COLLEGE  
For Christ in His Kingdom

휘튼대학교

1860년에 설립한 휘튼대학교는 깊이 있는 신학적 전통과 탁월한 학부 교육을 통해 전 세계 복음주의를 이끄는 수많은 리더를 배출한 명실상부한 복음주의 글로벌 리더의 산실입니다.

N 휘튼가스펠아카데미(WGA)



# “건전한 신학, 깊은 신앙, 바른 삶 WGA와 함께 시작하세요!”

## WGA

휘튼가스펠아카데미(WGA)는 휘튼대학교와 복음과도시가 함께 만든 신학 교육 기관입니다.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가는 리더십을 비롯한 한국 교회의 주역이 될 성도들에게 복음 중심의 건전한 신학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 WGA 수강생에게만 주어지는 특전

한국 교계 원로 멘토들과 함께하는 1박 2일

소그룹으로 진행되어 멘토링과 교제가 함께 이루어지는 시간.  
2025~26년 겨울, 유기성 목사(위지엠, 선한목자교회 원로), 조봉희 목사(서울지구촌교회 원로), 박은조 목사(한동대학교 교목실, 은혜샘물교회 원로)와 함께하는 시간 확정

“휘튼대학교 및 미국 복음주의 교회 탐방”

- 휘튼대학교 총장과의 만남 및 캠퍼스 투어
-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교회 탐방
- 미국 현지와 연계한 행사에 참여할 기회 제공

1학기 주요 강의

Divine Revelation and the Trinity\_Keth Johnson  
Creation and the Kingdom\_Keth Johnson, Rick Richardson  
언약과 하나님 나라\_이재훈 목사  
바울의 심장소리:사도가 남긴 복음의 정수(로마서)\_이인호 목사  
교회에 침투한 가짜복음(기독교 이단)\_김다위 목사 외

## 개요

개강. 2025년 9월 18일(목) 오후 7시  
강의. 매주 목요일 13주간 저녁 7~10시(공휴일 휴강)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헷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기간. 2년 4학기  
학비. 학기당 2백50만 원(온라인으로만 수강시 2백만 원)

## 등록금 할인 제도

투게더 5%(두 명 이상 함께 등록)  
포워드백 5%(두 학기 선납)  
복음과도시 이사 교회 5%, 최대 20%까지 가능합니다.

## 등록 안내

7월 10일~8월 31일



유기성 목사



조봉희 목사



박은조 목사

Keith Johnson 교수  
휘튼대학교 신학과Rick Richardson 교수  
휘튼대학교 신학과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이인호 목사  
더사랑의교회김다위 목사  
선한목자교회